

한 성령으로 한 몸 된 교회 May 27

• 예베소서 4:11-16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회중’, 곧 성도들의 모임(에클레시아)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성도들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성령으로 한 몸 된 교회(지체들)를 통해 당신의 음성과 뜻을 들려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동참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한 성령이 계십니다. 각 지체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을 나누며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체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함께’ 자라야 합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을 듣고 한마음이 될 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 몸에 다양한 지체가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듯,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지닌 서로 다른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지체의 우열이나 경종을 가리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지체 하나하나가 건강하고 온전한 몸을 이루는 필수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끼발가락이 아플 때 비로소 ‘아, 새끼발가락이 여기 있었구나’하고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 돌출 행동을 하거나 문제의 중심에 서 있다면, 그 지체의 아픔을 살피십시오.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몸의 그 어떤 부분도 함부로 잘라내지 않습니다. 아픈 부위가 치료받고 회복될 때 온몸이 평안을 얻습니다.

나는 지체들과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 ① 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한마음을 이루고 있습니까?
- ② 아픈 지체가 회복되도록 둘보며 중보하고 있습니까?